

이 보고서는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기술분석보고서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JW신약(067290)

제약

요약
기업현황
재무분석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한국기업데이터(주)

작성자

신지혜 선임전문위원

- 본 보고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후원을 받아 한국IR협의회가 기술신용 평가기관에 발주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3215-2398)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JW신약(067290)

끊임없는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의약품 제조 전문 기업

기업정보(2022/02/08 기준)

대표자	백승호
설립일자	1975년 1월 1일
상장일자	2003년 2월 11일
기업규모	중견기업
업종분류	완제 의약품 제조업
주요제품	피부과, 비뇨기과, 이비인후과 등 전문의약품 외

시세정보(2022/02/08 기준)

현재가(원)	4,260
액면가(원)	500
시가총액(억 원)	1,965
발행주식수(주)	46,127,437
52주 최고가(원)	6,250
52주 최저가(원)	3,192
외국인지분율	1.30%
주요주주	JW홀딩스(주) 25.15% 이종호 5.55% 외

■ 우수한 의약품을 생산/공급하는 클리닉 전문메이커

JW신약(주)는 1975년 1월 대성산업사로 설립된 후, 2003년 2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으며,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기업구조를 재편하기 위해 2008년 5월 JW그룹에 편입되어 2009년 5월 (주)중외신약과의 합병을 통해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 R&D 등의 사업구조를 영위하고 있다.

■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세포치료제, JW크레아젠(주) 개발 중

JW신약(주)의 자회사인 JW크레아젠(주)는 2021년 9월 온코인사이트와 세포치료제인 CAR-M 개발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 후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이다. JW크레아젠(주)는 기존 수지상세포에서 쌓은 면역세포 배양 기술을 활용하여 CAR 기술이 도입된 유전자세포치료제 파이프라인 확보와 동시에 수지상세포와 병용 효과가 기대된다.

■ 성장하는 탈모 시장에 따른 탈모치료제 수요 증가

최근 탈모 환자가 증가하면서 탈모치료제 시장도 빠르게 커지고 있으며, 병원 처방이 필요한 전문 탈모치료제 시장은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 성분이 양분하고 있다. 국내에 출시된 두 성분의 제네릭(복제약)은 수십 개에 이르고 가격도 비교적 저렴하지만, 대표 약품(프로페시아, 아보다트)이 전체 시장에서 절반가량을 차지하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제네릭 중에서는 JW신약(주)가 내놓은 모나드 제품의 매출이 2020년 기준 약 62억 원으로 국내 시장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도 JW신약(주)는 네오다트, 로게인폼 등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여 클리닉 영역에서의 입지를 강화시키고 있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구분 년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18	918	19.43	6	0.63	-75	-8.20	-21.36	-6.47	228.16	-165	731	N/A	8.34
2019	1,025	11.72	11	1.12	14	1.41	2.90	1.17	107.56	31	1,444	140.53	3.06
2020	1,038	1.24	-6	-0.53	-65	-6.21	-10.51	-5.53	70.97	-140	1,229	N/A	4.64

기업경쟁력

다양한 연구 네트워크 확보

- 공동연구를 통한 오픈 이노베이션 실현
 - 산학연 연구 네트워크, 자회사 연구소와의 협업 등

차별화된 생산시설 보유

- 경기 평택 JW신약 공장 : KGMP 적격업소 지정
- 내용고형제/외용액제/연고제 맞춤형 생산 시설 보유

핵심기술 및 주요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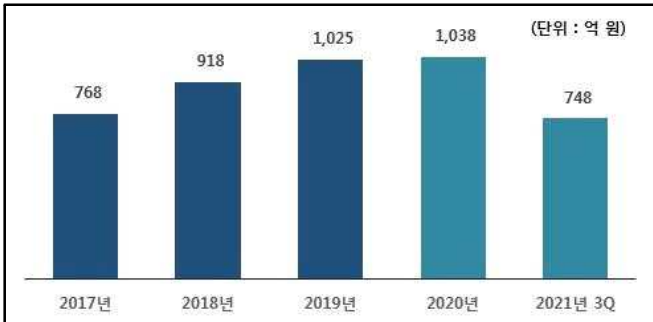
핵심기술

- 수지상세포 백신 기술(자가면역질환 치료 기술)
- 약물 전달 기술(Cytoplasmic Transduction Peptide)
- 단백질 제조 기술(항원, 사이토카인, 성장인자 등)

주요제품

- 전문의약품 : 글리커버, 제이페롤, 콜미플루캡슐 외
- 일반의약품 : 라니그린캡슐, 로게인폼에어로졸 외
- 의약외품 : 프리덤 폼 ■ 기타 : 건강식품 외

매출실적



시장현황

목표시장 내 경쟁력

- 소비자 요구에 맞는 제재 개선 연구를 통한 차별화된 제품 파이프라인 구축(CreaVaX-HCC, CreaVaX-BC 외)
- 주요 관계사인 JW중외제약(주)의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공동마케팅을 통해 체계적인 영업 네트워크 구축
- 피부과/소아과 중심 탈피, 내과 중심의 영업기반 구축

최근 변동사항

JW크레아젠(주) 세포치료제 개발 중

- 2021년 9월, 온코인사이트와 CAR-M 개발 MOW 체결
- 기존 수지상세포에서 쌓은 면역세포 배양 기술 활용
- 유전자 세포 치료제 파이프라인 확보 기대

성장하는 탈모 치료제 시장

- 탈모 환자 증가(CAGR 2.4%)에 따른 치료제 시장 성장
- 동사 모나드, 네오다트, 로게인폼 등 치료제 지속 출시
- 클리닉 영역에서 입지 강화 중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활동 현황

ESG	Issue	Action
 ENVIRONMENTAL	- 에너지·온실가스 이슈는 많지 않은 편 - 시약 및 의약품 제조로 환경이슈(폐수, 가스, 유해화학물질 등) 발생 가능성 있음 - ESG 경영 세계적 이슈	- 전 생산 시설 에너지 및 온실가스 사용 감축 시설 도입 (자동 타이머 점등 시스템, 저탄소 고효율 보일러 등) - 대기 환경 관리 : 공조필터, 집진기 등 저감 장치 설치 - 화학 물질 관리 : MSDS 통합 관리시스템 고도화
 SOCIAL	- 제품 특성상 높은 신뢰성과 품질안정성 요구 - 조직문화, 직원 복지 및 근무환경 - 거래처 및 협력업체와의 관계 - 기술보호, 유출 및 정보보안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CSR 활동 수행 (혈우병 환우 질환 극복을 위한 언택트 사회공헌 프로그램 진행, 필수 지침을 만화로 보는 혈우병으로 책 발간) - 근로자 직업병 예방 : 작업 현장 유해요인 노출 수준 측정
 GOVERNANCE	- 준법경영, 부패방지 및 내부고발 - 정보관리 및 정보보호 - 이해관계자 소통을 위한 채널 다양성 확보 -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투명한 제도	- 소통 확대를 위한 홈페이지 지속 업데이트 - 홈페이지를 통한 기업 활동 적극적인 공개 - 연구 자율성 보장과 꾸준한 기술개발을 위한 조직체계 확립으로 산업 성장과 혁신에 기여

한국기업데이터(주)의 ESG 평가항목 기반 자체 데이터, 언론자료 및 제출자료 등을 통해 Issue와 Action을 구성하고 이를 SDGs와 연계

I. 기업현황

제약과 바이오기술의 결합을 통한 헬스케어 리더

동사는 히트라졸정, 원플루캡슐 등의 항진균제 및 피디정 등 피부질환치료제, 항생제, 성장제 등의 전문의약품을 중심으로 특화된 시장의 제품 라인을 가지고 있으며, 항시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 및 영업성과를 극대화하고자 시장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 회사 연혁 및 주요 사업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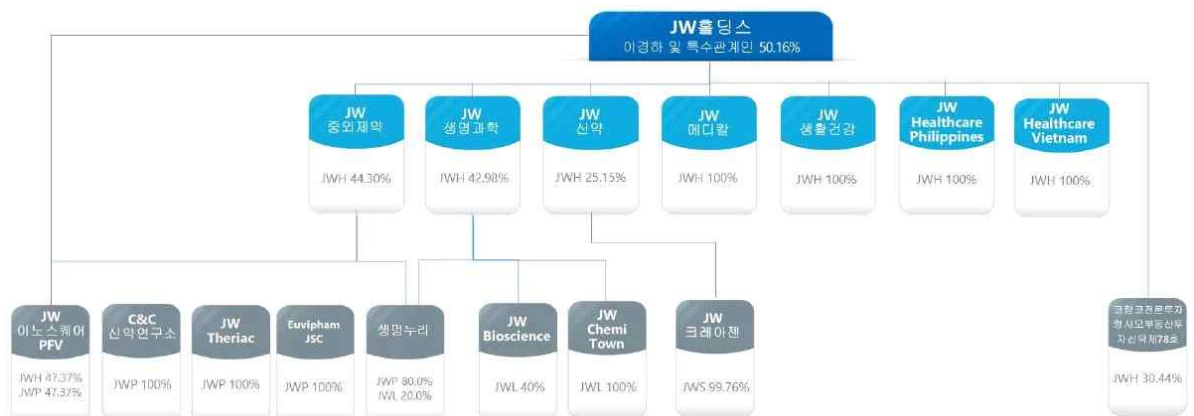
JW신약(주)(이하 ‘동사’)는 1975년 1월 대성산업사로 설립된 후, 2003년 2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으며,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기업구조를 재편하기 위해 2008년 5월 JW그룹에 편입되어 2009년 5월 (주)중외신약과의 합병을 통해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 R&D 등의 사업구조를 영위하게 되었다. 주요 연결대상 종속회사로는 JW크레아젠(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분기보고서(2021년 9월) 기준, 종업원 251명이 근무하고 있다.

동사는 의약품을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영역으로 하고 있으며, 제약 산업의 생태계 속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제약회사로서 클리닉 시장을 선도하는 제품을 바탕으로 JW중외제약(주)의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공동 마케팅을 통해 체계적인 영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종속회사인 JW크레아젠(주)는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하는 첨단 세포치료제 전문회사이며, 암 치료제의 개발에 이용되는 수지상세포와 고분자 물질을 세포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약물전달기술을 주요 기반기술로 보유하여 이 기술을 바탕으로 면역세포를 이용한 간세포암 치료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뇌종양치료제 등 개발하고 있다.

동사의 계열회사는 분기보고서(2021년 9월) 기준 동사를 포함하여 총 17개사이며, 상장법인인 JW홀딩스(주), JW중외제약(주), JW생명과학(주), 비상장법인인 JW메디칼(주), JW바이오사이언스(주), JW생활건강(주), JW케미타운(주), (주)C&C신약연구소, JW크레아젠(주), (주)제이더블유이노스퀘어피에프비, (주)생명누리, 해외법인인 Theriac Pharmaceutical Corp., JW Healthcare Philippines Co, JW Healthcare Vietnam Co, Euvipharm JSC 등이 있다.

[그림 1] JW그룹 계통도



*출처 : 동사 분기보고서(2021년 9월)

■ 대표이사 정보

대표이사 백승호(1961년생, 남)는 한국과학기술원 경영학 석사를 취득하였고, 한올바이오파마(부사장, 2015년~2016년), JW신약(영업 마케팅 총괄 부사장, 2016년~2017년) 등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7년 3월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현재까지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동사의 대표이사는 주력 사업을 위한 실현 가능한 중장기 경영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가운데, 연구개발 관리 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활발한 대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주요 주주 현황

동사의 최대주주는 25.1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JW홀딩스(주)(대표이사 : 이경하, 한성권)로, 동사의 관계회사이며, 대표이사인 이경하가 JW그룹 전체를 이끄는 회장직을 맡고 있다. 또한, 동사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임원 이종호 역시 이경하 회장의 부로 특수관계인들의 지분을 합하면 약 30.70%에 해당된다.

[표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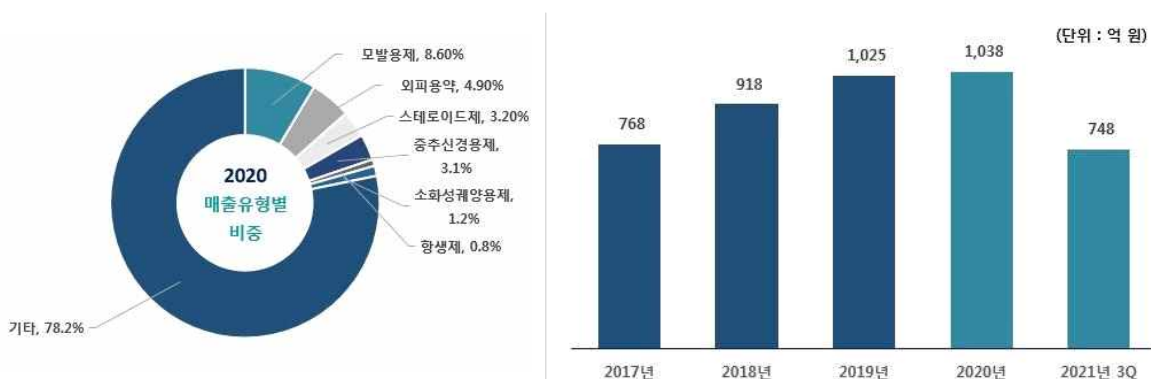
주요 주주	동사와의 관계	주식(주)	지분율(%)
JW홀딩스(주)	계열회사	11,049,477	25.15
이종호	임원(회장)	2,440,180	5.55
계		13,489,657	30.7

*출처 : 동사 분기보고서(2021년 9월),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 주요 매출 현황

동사는 히트라졸정, 원플루캡슐 등의 항진균제 및 피디정 등 피부질환 치료제, 항생제, 정장제 등의 전문의약품을 중심으로 제품을 구성하고 있으며, 피부과, 비뇨기과, 소아청소년과 등 특화된 시장에서 이익률이 높은 비급여성 제품 라인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특히, Clinic 중심의 영업활동을 통해 해당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형품목육성을 위해 발모제 등 제품을 차별화하여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코자, 항시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 및 영업성과를 극대화하고자 시장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림 2] 매출 유형별 비중(좌), 연도별 매출현황(우)



* 출처 : 동사 연도별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2021년 9월),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II. 재무분석

사업 다각화를 통한 미래 먹거리 발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하는 환자가 줄어든 상황에서 대면 영업도 어려워져 실적이 다소 감소되었으나, 향후 백신 보급률 상승에 따른 병원 내원객 증가로 주요 의약품 수주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백신 보급률 상승에 따른 의약품 수주 회복세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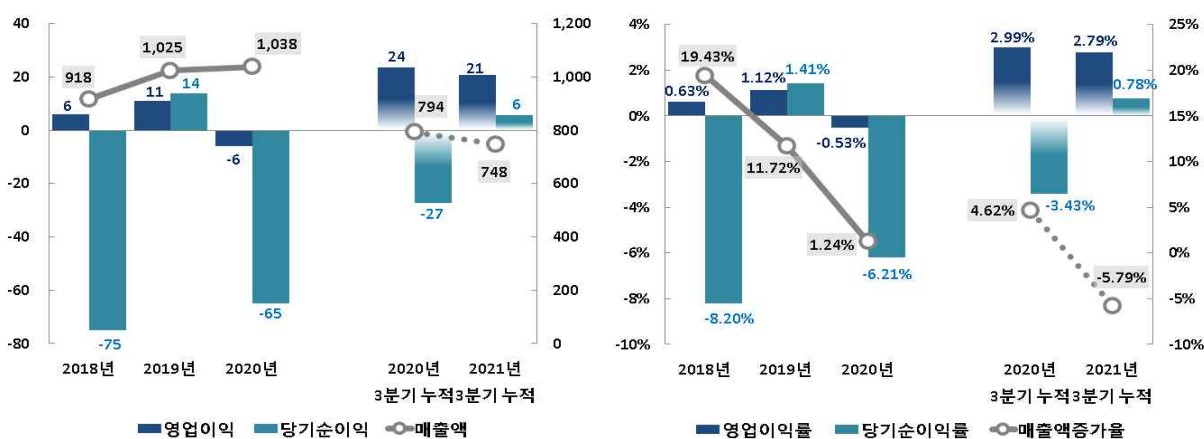
동사의 주요 자회사로는 수지상세포를 이용한 치료제를 연구하는 JW크레아젠(주)가 있으며, 최근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등으로 JW크레아젠(주)의 바이오 신약개발에 투자하여 관절염치료제 등의 신약 출시에 주력하고 있다.

동사의 매출액은 2018년 918억 원, 2019년 1,025억 원, 2020년 1,038억 원으로 증가세에 있으나, 최근 코로나19로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하는 환자가 줄어든 상황에서 대면 영업도 어려워져 이에 따라 실적이 악화되어 영업이익(영업이익률)은 2018년 6억 원(0.63%), 2019년 11억 원(1.12%), 2020년 -6억 원(-0.53%)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한편 분기별 최근매출 추세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피디정을 비롯한 주요 약품의 매출이 감소하여 2021년 3분기 누적 매출액은 74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9% 감소하였고, 영업이익(영업이익률)은 원가율의 상승과 판매비 부담 가중으로 21억 원(2.79%)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억 원(0.21%p) 감소하였다.

동사는 향후 백신 보급률 상승에 따른 병원 내원객 증가로 주요 의약품의 수주가 확대될 전망이며, 이를 통해 수익성 또한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3]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K-IFRS 연결기준] (단위 : 억 원)



*출처 : 동사 연도별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2021년 9월),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 무난한 재무구조 견지

동사의 총자산은 2019년 말 1,369억 원에서 2020년 말 963억 원으로 29.61% 감소하였고

2021년 3분기 말 915억 원으로 추가 감소하였다. 부채비율은 2018년 말 228.16%, 2019년 말 107.56%, 2020년 말 70.97%이고 이자보상배율은 2018년 0.41배, 2019년 0.92배, 2020년 -0.44배이다.

또한, 유동비율은 2018년 말 101.89%, 2019년 말 227.89%, 2020년 말 86.97%이고 당좌비율은 2018년 말 68.72%, 2019년 말 184.67%, 2020년 말 46.19%이다. 2021년 3분기 말 부채비율은 64.14%, 유동비율은 90.32%로, 무난한 편이나 유동비율을 중심으로 본 단기채무 안정성은 다소 미흡한 상태이다.

[그림 4]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K-IFRS 연결기준]

(단위 :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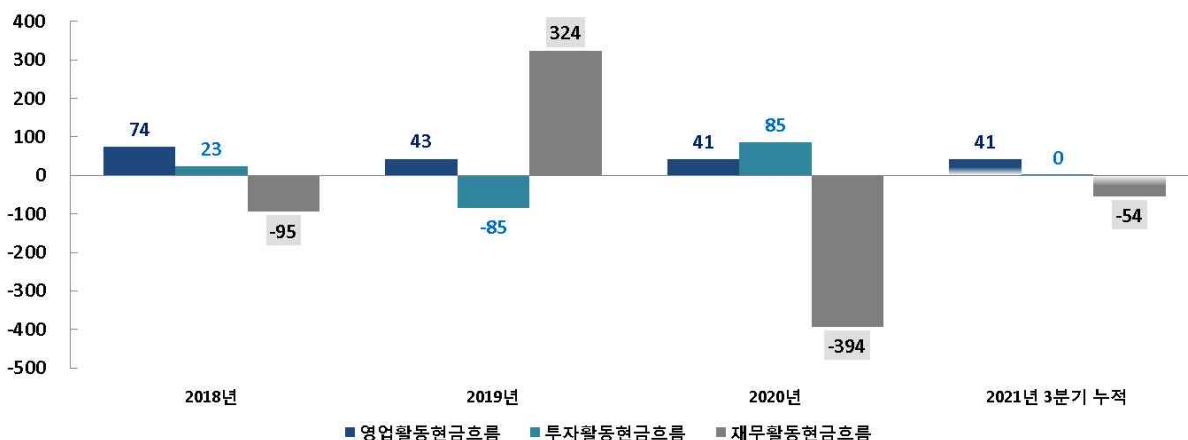
*출처 : 동사 연도별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2021년 9월),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동사는 영업활동을 통해 2019년, 2020년 연속 정(+)의 현금흐름을 창출하고 있고, 투자활동 현금흐름은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등으로 2019년 부(-)에서 2020년 정(+)의 흐름을 나타내었으며, 재무활동현금흐름은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비용의 지급 및 현금성자산의 감소 등으로 2019년 정(+)에서 2020년 부(-)의 흐름을 나타내었다.

2021년 3분기 누적 현금흐름을 볼 때, 영업활동과 보유자산 매각을 통해 부채를 상환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기초 대비 13억 원 감소한 19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림 5] 현금흐름 분석 [K-IFRS 연결기준]

(단위 : 억 원)



*출처 : 동사 연도별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2021년 9월),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Ⅲ.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 및 출시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

동사는 중·장기적으로 현장의 문제, 현장의 기회 요소 발굴을 통해 다양한 신규 제품(탈모치료제, 고중성지방혈증 치료제,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등)을 지속적으로 출시함으로써 급변하는 사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경쟁력 강화하고 있다.

■ 코로나19로 바이오제약 산업의 중요성 부각

코로나19로 인해 바이오산업의 중요성 및 명성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 처방의약품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데, 글로벌 의약품 시장조사기관인 EvaluatePharma가 2021년 7월 발표한 「World Preview 2021, Outlook to 2026」에 따르면, 글로벌 처방의약품 매출액은 2021년 1조 310억 달러(약 1,193조 원)에서 연평균 6.4%로 성장해서 2026년에는 1조 4,080억 달러(약 1,629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희귀 의약품은 신약 개발에 있어 여전히 큰 관심거리이며, 2020년 기준으로 1,380억 달러(약 163조 원)에서 2026년까지 2,680억 달러(약 317조 원) 규모로 약 2배 이상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그림 6] 세계 처방의약품 매출액 규모 및 전망(2021-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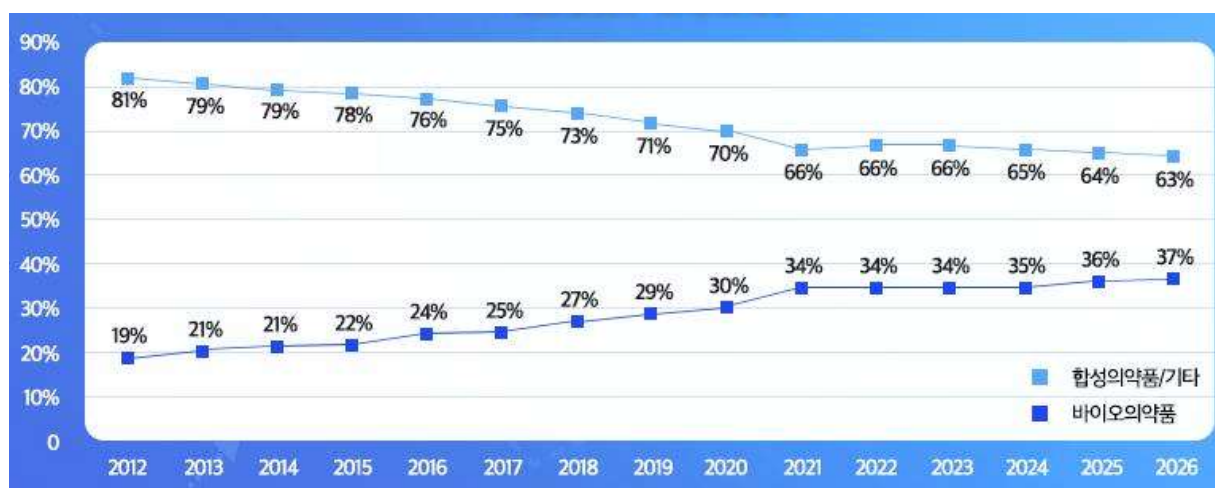
*출처 : EvaluatePharma, World Preview 2021, Outlook to 2026, 대응제약

또한, 최근 가상 임상시험 등 디지털 솔루션 적극 도입, 항감염제 및 백신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이에 따라 글로벌 바이오·제약 社들은 경쟁사를 포함해 데이터 공유 및 협업이 확대되었고, 규제기관 역시 유연한 대응을 통해 빠른 시간에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었다. 업계가 백신 생산을 본격화하면서 투자자들의 자금이 대거 유입되기도 했으며, 이를 통해 중단된 임상시험이 정상궤도에 오르면서 미국 FDA도 2019년 48건에서 2020년에는 53건으로 비슷한 양의 의약품을 승인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해 바이오제약에 투자와 관심이 집중되면서 가상(또는 원격) 임상시험, 온라인 의료 제공 및 원격의료를 포함한 디지털 솔루션의 부상 등 이미 진행 중인 바이오·제약의 트렌드를 가속화했다.

다만, 암에 대한 R&D 투자는 2020년에 7% 상승하면서 코로나19와는 관계없는 견고한 증가세를 보였다. 암은 수년간 R&D 자금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으며, 코로나19로 수조 달러의 정부 지원이 투입된 상황에서도 우위를 차지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 전체 의약품 시장에서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2020년 30%에서 2026년에는 3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매출 상위 100대 제품에서 바이오의약품 비중은 2012년 38%에서 2020년에는 52%로 기존 제품을 추월한 바 있으며, 2026년에는 매출 상위 100대 제품의 57% 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7] 의약품 종류별 시장 점유율 전망(2021-2026)



*출처 : EvaluatePharma, World Preview 2021, Outlook to 2026, 대응제약

■ 국내 제약업계, 진화하는 블루오션 ‘세포치료제’ 시장 진입 활발

최근 차세대 바이오의약품으로 세포치료제가 떠오르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앞 다투어 뛰어들고 있다.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세포치료제 시장 규모는 지난 2019년 5억 3,740만 달러(약 6,204억 원)에서 연평균 36.2% 성장하여 2026년 46억 8,420만 달러(약 5조 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표 치료제가 없어 국내 제약사들의 세포치료제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 열기가 높다.

세포치료제는 자가, 동종, 이종세포를 체외에서 증식, 변화시켜 치료 목적으로 만든 의약품으로 유전자치료제와 함께 이른바 3세대로 분류되며, 1세대인 재조합 단백질 의약품, 2세대인 항체 의약품과 전혀 다른 기술 기반을 요구하고 있어 그동안 상용화가 빠르지 않았다. 하지만 세포치료제가 암이나 자가면역질환과 같은 난치성 질병 분야에서 치료 효과를 보이면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치료제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기준 시장의 대표적 세포치료제로는 CAR-T, CAR-NK, CAR-M 등이 손꼽히는데, 이중 상용화가 가속화되며, 시장에서 가장 활발할 치료제는 CAR-T로 분석된다. CAR-T 치료제는 환자 자신의 면역세포인 T세포에 암세포를 항원으로 인식하는 수용체 유전자(CAR, 키메라 항원 수용체)를 도입하여 암세포만 공격하도록 만든 치료제이다. 현재 총 5가지 제품이 7개 적응증을 대상으로 FDA 승인을 받았으며, 해외에는 글로벌 제약사의 티사젠렉류셀, 액시캅타진 실로루셀, 블랙수캅타진 오토류셀, 리소캅타진 마라류셀, 이데캅타진 비클류셀 등이 있다. 국내의

경우 티사젠렉류셀 성분만이 식약처의 허가를 받으며 본격 도입되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개발된 CAR-T 치료제는 거부 반응(이식 편대 숙주병, GvHD) 때문에 자가 세포밖에 사용할 수 없으며, 환자 본인의 혈액에서 후천성 면역세포인 T세포를 추출해 사용하기 때문에 개인 맞춤형 치료제라는 장점도 있지만 대량 생산이 불가능해 사업화에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T세포 특성으로 인해 거의 대부분의 약물 투여 환자에게서 사이토카인방출증후군, 중추신경계의 부종 등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CAR-T 치료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차세대 세포치료제로 CAR-NK가 활발한 임상 개발을 진행 중이며, 그 뒤를 이어 CAR-M이 주목받고 있다. CAR-NK 치료제는 건강한 사람 혈액에서 추출한 면역세포인 자연살해(NK) 세포를 유전자 조작을 통해 특정 암세포와 결합하도록 만든 뒤 환자에게 투여하는 형태의 항암제이다. 환자 자신의 세포만을 사용해야 하는 CAR-T 치료제와 비교했을 때,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생산 비용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준이나, CAR-T 치료제와 마찬가지로 고형암에 살상력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CAR-M 치료제는 대식세포(Macrophage)에 CAR 유전자를 적용해 정상세포에 영향을 주지 않고 암세포만 파괴, 암 특이적인 살상력을 극대화한 차세대 면역항암제이다. 종양 부위까지 이동이 제한적인 T세포와는 달리 대식세포는 고형암 주변에서 잘 발견되어 전체 암 환자 90% 이상을 차지하는 고형암에서 우수한 효능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표 2] 세포치료제 종류별 장단점 비교

구분	CAR-T	CAR-NK	CAR-M
세포 기원	자가유래 치료제	동종유래 치료제	동종유래 치료제
	환자 혈액에서 추출	일반인 혈액에서 추출	일반인 혈액에서 추출
세포 기반	T세포	NK세포	대식세포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CRS) 부작용	75~100% 환자에게서 발생	발생 우려가 적음	발생 우려가 적음
생산 비용	고가 (환자 맞춤형 치료제)	상대적 저가 (Off-the-shelf, 기성품)	상대적 저가 (Off-the-shelf, 기성품)
주요 적응증	혈액암	혈액암, 고형암	고형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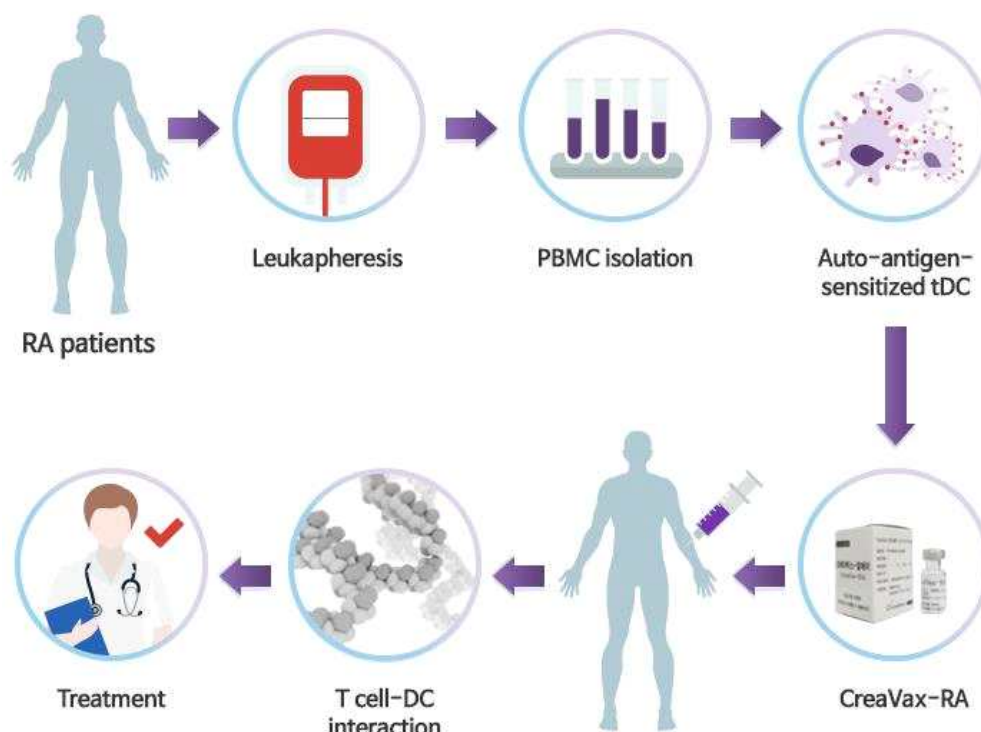
*출처 : JW중외제약(주) 홈페이지,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국내 제약사들은 동사의 자회사인 JW크레아젠(주)를 포함하여 GC셀, HK inno.N, LG화학 등이 세포치료제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동사의 자회사인 JW크레아젠(주)는 2021년 9월 온코인사이트와 ‘CAR-M’ 개발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 후 현재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이다. JW크레아젠(주)는 기존 수지상세포에서 쌓은 면역세포 배양 기술을 활용하여 CAR 기술이 도입된 유전자세포치료제 파이프라인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수지상세포와 병용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으며, CAR-T, CAR-NK와 달리 CAR-M 치료제는 개발사가 극소수이기 때문에 CAR-M 치료제가 상업화된다면 세포치료제 시장을 리딩할 수 있다.

향후 JW크레아젠(주)는 온코인사이트로부터 유도만능줄기세포(iPSC) 유래 대식세포 분화 기술을 제휴 받고 수지상세포치료제 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iPSC 유래 대식세포 배양과 효능 평가

를 진행할 예정이며, 온코인사이트는 JW크레아젠(주)가 배양한 대식세포에 유전자 조작 기술을 활용하여 CAR 유전자를 도입하고 CAR-M 치료제를 제조할 예정에 있다. 또한, JW크레아젠(주)는 수지상세포 임상개발을 축으로 CAR-M 치료제를 비롯한 다양하고 유니크한 전략의 면역세포 치료제 연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림 8] 자회사 JW크레아젠(주)의 면역조절 수지상세포 이용 치료과정 모식도



*출처 : JW크레아젠(주) 홈페이지

■ 늘어나는 탈모 인구, 성장하는 탈모 시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탈모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는 23만 3,194명이며, 이 숫자는 2016년 21만 2,141명, 2017년 21만 4,228명, 2018년 22만 4,800명, 2019년 23만 2,596명, 2020년 23만 3,194명으로 연평균 2.4%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진료비 증가 속도는 매우 빠르는데, 탈모증 질환 총 진료비는 2016년 268억 3,200만 원, 2017년 286억 5,000만 원, 2018년 323억 6,400만 원, 2019년 361억 7,300만 원, 2020년 387억 3,900만 원으로 연평균 9.6%씩 증가하고 있다. 1인당 진료비도 2016년 12만 6,000원에서 2020년 16만 6,000원으로 31.3%가 증가했다.

2020년 기준 전체 탈모증 환자 중 30대가 22.2%(5만 2,000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40대가 21.5%(5만 명), 20대가 20.7%(4만 8,000명)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환자의 수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치료를 받은 환자의 수로, 건강보험은 병적인 탈모에 대해서만 치료비를 보장하기 때문에 노화나 유전, 미용 목적의 단순 탈모 치료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니므로 대부분의 탈모 환자들은 현재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비급여로 진료를 받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내 탈모 환자 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파악이 어려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밝힌 탈모 환자 수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9] 탈모 시장 현황



*출처 : 전자신문

이렇게 탈모 환자가 증가하면서 탈모치료제 시장도 빠르게 커지고 있으며, 병원 처방이 필요한 전문 탈모치료제 시장은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 성분이 양분하고 있다. 시장조사 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피나스테리드 오리지널인 오가는 프로페시아의 2020년 연간 실적은 412억 원, 2021년 상반기 실적은 189억 원을 기록했으며, 두타스테리드 오리지널인 GSK 아보다트의 2020년 연간 실적은 384억 원, 2021년 상반기 실적은 200억 원을 기록했다.

국내에 출시된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 성분 제네릭(복제약)은 수십 개에 이르고 가격도 비교적 저렴하지만, 오리지널 제품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편이다. 두 오리지널 제품은 전체 시장에서 절반가량을 차지하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제네릭 중에서는 동사가 내놓은 모나드 제품의 매출이 2020년 기준 약 62억 원으로 국내 시장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표 3] 탈모치료제 시장 현황

(단위 : 억 원)

제품명	회사명	2020년 누적	2020년 상반기	2021년 상반기	
피나스테리드 계열	프로페시아	오가논	412	198	189
	모나드	JW신약	62	30	28
	모모페시아	더유	48	18	27
	마이페시아	제뉴원	50	24	25
	피나스테리드	대웅바이오	31	15	16
	합계		603	285	285
두타스테리드 계열	아보다트	GSK	384	186	200
	다모다트	현대약품	33	13	28
	네오다트	JW신약	17	8	7
	원투스테리드	한국휴텍스제약	13	6	8
	두타라이드	큐엘파마	13	6	7
	합계		460	219	250
총계		1063	504	535	

*출처 : 아이큐비아,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처방이 필요하지 않는 일반의약품으로는 바르는 형태의 미녹시딜 성분 의약품 시장이 여성 탈모 인구 증가와 함께 성장세를 보이며, 약 100억 원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동사의 ‘로게인폼’, 현대약품 ‘마이녹실’, 동국제약 ‘판시딜’ 등이 대표적이다.

동사의 로게인폼은 두피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켜 모낭을 건강케하고 모발 성장 주기를 연장하는 미녹시딜(5%)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으며, 바르는 거품 타입 탈모치료제로 제형 특성 상 흘러내리지 않아 필요한 부분에만 적정량을 도포할 수 있고, 두피 흡수와 건조가 빨라 사용 편의성과 치료 효과가 높다. 또한, 미국 FDA 승인을 받았으며, 프로필렌글리콜(Propylene Glycol, PG)이 들어있지 않아 두피 자극이 적고, 여성 탈모 환자들도 1일 1회 도포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액상과 겔 형태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로게인폼의 가장 큰 장점으로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동사는 국산 경구용 탈모치료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기존 제품인 모나드와 네오다트 제품과의 시너지를 통해 클리닉 영역에서의 입지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그림 10] 동사의 탈모 치료 의약품



*출처 : 동사 홈페이지

최근에는 환자 대부분이 탈모 초기 샴푸 등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다가 탈모가 점차 진행되면서 의약품이나 병원을 찾게 되는데, 초기부터 효과적인 관리가 중요하고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된 제품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의약품 시장으로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또한, 기존 성분의 부작용과 복용 불편을 해소하는 새로운 기전의 치료제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사의 관계사인 JW중외제약(주)은 세포 증식과 재생을 조절하는 윈트(Wnt) 신호전달 경로를 활용한 탈모치료제 ‘JW0061’을 개발 중에 있다.

■ 최근 주요 연구개발 현황

동사의 연구개발 조직은 JW신약(주)의 개발실 및 제제연구팀, JW크레아젠(주) 연구소(연구1팀, 연구2팀, 연구기획팀)로 조직되어 있다. JW신약(주) 개발실에서는 신제품 연구와 더불어 기존제품의 공정개선, 품질개선 및 소비자들의 복용 용이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제제연구팀에서는 비뇨기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및 내과에서 사용되는 제품들을 중심으로 신제품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CMO(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사업 수행을 위한 제제연구와 기존제품의 공정개선, 품질개선 및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는 제제개선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JW크레아젠(주) 연구소는 암, 류마티스 관절염 등 난치성질환 치료제 및 CTP(Cytoplasmic Transduction Peptide) 관련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평균 연구개발투자비율은 3.86%로 산업 평균 6.51% 대비 낮은 수준이나, 기 시행되어 운영되고 있는 ‘허가특허연계제도’ 라는 허가요건 변화에 따라 제제연구계획단계에서부터 특허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다수의 기술개발을 진행하여 결과에 대하여는 지식재산권으로 등록하고 있어 핵심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사업 보완적 수단을 갖추고 있다.

[표 4] 연구개발투자비용 (단위 : 억 원)

과목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3분기
연구개발비용 계	22	35	27	25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 ÷ 당기매출액 × 100]	2.40%	5.16%	4.01%	3.30%

*출처 : 동사 연도별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2021년 9월),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표 5] 국내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2022년 1월 등록 기준, JW크레아젠(주) 실적 포함) (단위 : 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총계
21	-	-	255	276

*출처 : 특허청,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 동사의 ESG 활동

ENVIRONMENTAL

동사는 사업 영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를 개선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 에너지 및 온실가스 사용 감축 측면에서는 전 생산 시설에 LED 램프를 적용하고, 자동 타이머 부분 점등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감소하고 있다. 또한, 저탄소 고효율 보일러와 고효율 인버터 공기압축기를 설치하는 등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여름철 전력 피크 관리 시스템 운영 및 적정 실내온도 관리, 연휴 기간 유틸리티 설비가동 최소화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도 일조하고 있다.

또한, 대기환경 관리 측면에서는 생산 현장에 공조필터와 집진기 등 유해물질 저감 장치를 설치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대기오염물질 배출구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법적 허용 기준치인 30% 이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화학물질 관리강화 및 환경사고 예방 측면에서는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s) 통합관리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화학물질 관리와 환경 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 중에 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 중에 있다.

SOCIAL

동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실 예로 동사는 난치성 질환인 A형 혈우병을 비롯한 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환우들의 질환 극복 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언택트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브라보 캠페인’ 을 진행하고 있으며, 어린 혈우병 환자 가족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침들을 알기 쉽게 정리한 ‘만화로 보는 혈우병’ 을 발간해 한국혈우재단을 통해 환우 사회에 무료로 공급하고 있다.

[그림 11] 환우 사회 지원 활동



*출처 : 동사 분기보고서(2021년 9월)

또한, 동사는 JW생명과학(주)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 계약을 체결하고, (주)생명누리라는 기업을 설립했다. 이와 함께 JW당진생산단지에 사내 CAFE인 ‘카페누리’를 오픈하는 등 지속적으로 장애인의 자립과 성장을 돕고 있다.

이 밖에도 동사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을 위해 작업 현장의 유해요인 노출 수준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감소 대책 수립 및 개선을 통해 쾌적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매월 2회씩 산업안전보건 관련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지적 사항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있으며, 위험물 관리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

GOVERNANCE

동사의 이사회는 분기보고서(2021년 9월) 기준 등기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3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동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유지하여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외이사 선임요건을 준수하고 있다.

또한, 동사는 기업가치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여 주주가치의 제고를 위해 경영실적, 향후 투자계획 및 재무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내에서 배당규모를 결정하고 있으며, 정보공개와 주주 권익 보호 측면에서 상장회사로서의 공시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

이 밖에 소통 채널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Call back system을 도입하여 운영시간 외 접수되는 고객의 연락도 접수하고 있다. 제품을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클레임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기반으로 내부 규정에 따라 해결하고 있으며, 고객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주기적인 Voice of Customer 회의체를 운영하여 품질 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정보 접근 등의 권한을 준수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최신 소개 자료를 업데이트 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전개하고 있다.

증권사 투자 의견

작성기관	투자 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 최근 1년 이내 발간 보고서 없음		